

#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경향과 『삼국유사』

하 정 현\*

- I. 서론
- II. 고려 후기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 1. 신앙결사운동: 定戀結社를 중심으로
  - 2. 迦智山門의 浮上和 일연
- III. 13세기 후반 불교계의 동향
- IV. 결론

## I. 서론

“삼국유사는 어느의미로말하면 朝鮮上代를혼자擔當하는 문헌이라고할만하니 조선의 생활과 문화의源頭와古形을보여주는것이 오죽此書가잇슬다름일새니라. 조선의 古史를稽考하는이는 누구든지 切感하러니와 원체古記의零星하고 遺實의稀微한것은 새삼스레거론도말고 그중에도만약에 內籍으로는 이삼국유사가전하지안코 外傳으로는 저삼국지의동이열전이업섯드라면 무엇으로累千의 史葉을 萬一이라도 端倪하얏슬는지 생각하면소름이거치지안치못하는일이니라.”

이 인용문은 육당 최남선이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한국 고대문화를 어찌 알 수나 있었겠느냐는 강변이 담긴 삼국유사 해제의 한 부분이다.<sup>1)</sup> 사실 『삼국유사』는 한국의 고대문화를 전해주는 자료의 寶庫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기원을 알려주는 단군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들, 고조선에서 삼한을 거쳐 삼국에 계승되는 고대사 체계, 정치사회사, 불교의 전래과정 및 그 융성을 말해주는 고대불교사, 불상과 탑의 조성 연유가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불교미술사, 향가, 화랑 그리고 신라고승들의 득도와과정과 영험담 등 다양한 자료가

\*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啓明』18, 1927; 『新訂 三國遺事』, 1946.

수록되어있다. 실로 고대의 정치, 사회, 지리, 종교, 문학, 예술을 망라하는 자료집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삼국유사』는 자료로서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동국통감』에서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삼국유사』의 고대사체계를 채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까지 연구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자료집으로서의 유용성을 발휘해왔다.<sup>2)</sup>

그런데 이 책은 고대문화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로서 탐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국가라는 체계 속에서 연대기적 시간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과 神異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구 근대의 영향아래 인식론적으로 신화와 역사가 별개의 범주로 취급되어온 것에 반해 삶의 의미의 차원에서는 역사와 신화의 연계성을 찾는 신화인식과 일맥 통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구성과 체재가 갖는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주로 저자인 일연이 불교승려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씌어졌다는 사실로 설명되어왔다.

여기서 일연을 둘러싼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이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일연은 당대 국사까지 지낸 선승으로서 100여권 이상의 저술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저작들이 왜 현전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저서로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가 있는데, 정작 그의 비문에는 『삼국유사』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그의 단독 저술이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받아왔다.<sup>3)</sup>

일연의 저작들이 대부분 현전하지 않는 것은 일연의 다음 대를 계승한 가지산문의 중심인물인 보감국사 훈구(1251-1322)의 저작들이 전하지 않은 사실과도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의 저작들이 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가하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들이 국존까지 지낸 불교계의 거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저작은 후대에 와서 훼손됨으로써 전하지 않게 된 셈인데, 그러면 어떤 계통의 인물에 의해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불교를 비판하면서 수용된 성리학 계통에 의해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가능성은 불교 자체 특히 선종 계통의 정통론 논의 과정에서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자의

2) 『동국통감』에서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魏書를 인용한 부분에 의거하여 고조선의 건국연도는 唐堯 戊辰年(기원전 2,333)이라고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삼국유사』는 비문에 나열된 저서 중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삼국유사』 권5에 첫머리에 “국존조계종가지산하인각사주지원경충조대선사일연찬(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徑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을 뿐이다.

경우 초기 성리학 계통의 사대부들이 남긴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동문선』이나 개인의 문집류 등에 수록, 전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불교 선종 자체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sup>4)</sup>

忽滑谷快天은 『朝鮮禪教史』에서 “일연은 널리 제학에 통하였고, 저서가 많은데 모두 그가 鴻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대의 사조에 빠져서 사상과 신앙 두 가지가 모두 순수하지 못하였고 가지산문의 현풍을 진작하기에는 부족하였다”라고 하였다.<sup>5)</sup> 여기서 ‘시대의 사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 또 ‘순수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일본인 연구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일연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역사화’된 일연과 실제의 ‘역사적’ 일연 사이에 거리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는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이 문제에 접근을 위해 일연이 몸담고 있던 불교계의 경향과 불교계 내에서 일연의 입지와 그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삼국유사』가 불교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삼국유사』는 육당 최남선이래 이보다 100여 년 이상 앞서 나온 『삼국사기』와 주로 비교되어왔다. 즉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관찬서이고, 이에 대한 반발격으로서 『삼국유사』는 신비적인 불국토사상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불교인들은 이 책의 서술태도에 이의 없이 수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도 개인 원찰인 觀瀾寺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雪堂居士라 하면서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 惠素와 친교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려초기의 교종 승려들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불교를 통박한 의천의 불교인식과 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6)</sup>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민족 최고의 두 史書에 대해 유교인과 불교인의 저작의 결과라는 구도로 단순히 대비시키고 마는 태도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히려 『삼국유사』는 당시의 승전류인 『해동고승전』과의 비교 연구 등 불교계 내에서의 위상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고려의 문화의식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삼국유사』의 성격은 우선 당시 불교계 내에서 어떤 흐름과 맞물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가지고 고려말의 시대적 상황과 당시 불교계의 경향, 이와 관련된 일연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6, pp.148-9

5) 忽滑谷快天, 『朝鮮禪教史』, 大東佛敎研究院, 1970, pp.238-9

6) 허홍식, “13세기 고려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고려중후기불교사론』, p.78.

## II. 고려 후기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무신란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 할 때, 이때부터 최씨정권(1196-1258)의 지원을 받은 선종은 다시 浮上하게 된다. 여기서 무신란 이전의 고려 불교계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말여초 이른바 선종구산으로 불리는 선불교는 기존의 종파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수도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중앙의 정치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에서 호족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들 선문의 개창자들은 대부분 화엄종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교를 접하면서 진로를 변경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남종선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마조도일(707-786)의 제자들로부터 법을 이어받고 귀국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파격적인 불교는 기존의 교학 불교와 마찰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고려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현종대(1009-1031) 이후에 와서 불교계도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 이전에는 화엄종과 더불어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던 선종은 지방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문벌귀족의 불교인 교종계통의 법상종이 화엄종과 양립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었다. 선종은 제 3종단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차에 선종교단에 결정적인 자극을 주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의 창립인데, 원래 화엄종 승려였던 의천은 화엄종과 법상종의 대립에서 화엄종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선종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천태종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숙종 2년(1097) 의천은 천태종의 본거로서 國淸寺를 창건하여 선종의 승려만을 포섭하여 조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선종교단은 천태종에 개종하여 들어가는 승려와 원래의 선종(조계종)을 고수하려는 승려로 양분되었다. 그 결과 중앙 불교계는 교종 계통의 화엄종과 법상종, 그리고 선종 계통의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분리되는 이른바 4대 교단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한편 정통 종파불교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불교의 조류가 있었는데, 이른바 거사불교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거사불교의 유행은 고려 중기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귀족사회에는 문인관료나 유학자라 하더라도 불교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sup>7)</sup> 가령 당시의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김부식도 불교에

7) 최병현, “고려중기 이자현의 禪과 거사불교의 성격”, 『고려중후기불교사론』, 1992,

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형인 玄湛은 일찍이 출가하여 현화사에 거주하면서 의천과 교유하고 있었고, 그 자신도 개인 원찰인 觀瀾寺를 가지고 있었으며, 만년에는 불교에 심취하여 雪堂居士라 하면서 의천의 제자 惠素와 친교를 가졌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이자현은 당대 최대의 문벌귀족가문인 仁州李氏 출신으로서 벼슬을 버리고 淸平居士라 자호하고 불교 연구와 참선으로 일생을 보냈던 전형적인 거사불교의 인물이었다. 그는 慧炤國師를 비롯한 선승 광홍과 같은 인물들과 교유함으로써 불교계나 일반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무신란으로 문인귀족이 몰락하고 전면적인 사회동요 그리고 대외적인 몽고와의 항쟁 등의 시련은 고답적이고 은둔적인 성격의 거사불교가 오래 유행할 수 없게 하였다. 대내적으로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대몽항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기반의 구축이 요구되자 거사불교는 후퇴하고 지방의 지식인을 중심으로 결사불교가 대두되었다. 결국 거사불교는 12세기말 선종 부흥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신앙결사운동: 定慧結社를 중심으로

신앙결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 東晉의 慧遠이 廬山에 세운 東林寺 結社, 즉 白蓮社이다. 백련사는 402년 혜원을 중심으로 한 승려와 劉遺民, 雷次宗 등의 당시 독서층들로서 총 123명이 시작한 신앙결사였다. 이들은 무량수불상 앞에서 서방정토의 淨業을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염불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염불삼매는 좌선을 통해서 禪定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혜원의 백련사는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의 신앙결사의 시원으로 인식되어 그 이후 관념적으로 이것의 계승을 표방하는 예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인다.<sup>8)</sup>

또한 중국 화엄종의 경우 남북조 및 수당에서 華嚴齋라 칭해진 화엄경 중심의 齋會가 유행하여 화엄종 형성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 뒤 당대에 법장의 단계에 와서 화엄종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법장 단계의 화엄종이 당의 수도인 장안에서 황실과 귀족들의 비호 속에 성장하면서 귀족불교화되어 갔을 때 江南의 抗州를 거점으로 재야의 독서층과 일반 민이 중심이 되어 화엄경 결사가 행해졌다. 그러다가 당 중엽 이후 특히 安史의 난 후, 사회전반에 걸친 변동기에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결사조직이 널리 기층사회에까지 파급되었다.

그 뒤 五代 말에서 宋初에 이르러서는 특히 미타신앙에 바탕한 염불결사가 유

pp.191-2

8)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pp.22-3

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혼란상에 직면하여 신앙적으로 활로를 찾기 위한 현상이었다. 이때의 결사는 각 종파에서 조직하였으나 그 특색은 대부분 강남지역에서 유행하였다는 사실과 주로 정토신앙에 바탕한 점, 천태종의 山家派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유사』 台山五萬眞身條를 보면 신라통 일기에 왕실과 귀족의 지원 아래 화엄계통의 결사조직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미타, 미륵신앙에 바탕한 정토결사가 있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지방의 토호층과 일반 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신앙형태로 결성된 것으로 향도라고 불리웠다.

12세기말 무신의 난이 일어날 무렵 시대적인 반성과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불교계에서도 과거의 사치와 안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운동으로 불교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집단 신앙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신앙결사운동이었다.

### 1-1. 정혜결사

인종 7년(1129)에 범상종의 津億이 세운 지리산의 水精社와 일부 화엄종 계통의 신앙결사는 이미 있었지만 보수화한 기성 불교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면서 시작한 대표적인 신앙결사는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이후 수선사로 사액됨)와 천태종 승려 了世(1163-1245)의 백련결사였다.

정혜결사는 보조국사 지눌<sup>9)</sup>이 25세(1182)에 僧科<sup>10)</sup> 응시를 위해 개경의 普濟寺에서 개최된 談禪法會場을 찾았을 때 주변 승려들에게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발단이 된다. 그는 당시 명예와 출세의 길로 여겨졌던

9) 지눌(1158-1210)은 1158년 지금의 황해도 서흥군 동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속성은 鄭이고 법명은 지눌인데, 평소 그는 자신을 牧牛子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佛日普照國師 혹은 普照國師는 그가 입적한뒤 1210년 회종이 하사한 시호이다. 지눌의 부친 정광우는 국자감의 學正이었는데, 당시 하급관료직으로 보인다. 지눌이 13세였을 때(1170) 무신정변이 일어나 많은 문신들이 희생되었고 곧이어 무신들 간의 무자비한 권력투쟁이 뒤따랐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청년 지눌은 당시 사굴산 선문에 소속된 승려가 되었다.

10) 고려시대에는 승려들의 과거에 해당하는 승과가 있었다. 승과 합격자들에게는 승계가 주어졌는데, 승계는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대선-대덕-대사-중대사-삼중대사가 있고, 그 다음 등급부터는 명칭에 있어 선종과 교종이 달랐다. 선종의 경우는 삼중대사 다음은 선사이고, 그 다음에는 대선사였다. 교종의 경우는 삼중대사 다음에 수좌, 그 다음에는 승통이다. 이들 위에 특별적으로 왕사, 국사가 있었다.

담선법회장에서 동료들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勸修定慧結社文』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sup>11)</sup>

“동학 10여 명과 더불어 약속하기를 이 모임이 파한 후 우리는 마땅히 명리를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同社를 결성하고 항상 翫定均慧<sup>12)</sup>에 힘쓰도록 하자. 예불하고 經을 읽는 일부터 시작하여 노동하고 運力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각자 그 맡은 바에 따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성을 기르며 평생을 자유롭게 지내면서 達士와 眞人の 높은 수행을 멀리서 좇은 즉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지눌은 이렇듯 자신의 理想을 제시하여 도반들의 지지를 얻어내지만 ‘예상치 못한 選佛場의 이익과 손해되는 일’(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로 동료들은 흩어지고 그의 제안은 한동안 실행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눌은 昌平淸源寺, 下柯山, 八空山, 智異山 등지를 다니면서 修禪에 힘쓰다가<sup>13)</sup> 팔공산 거조사에서 불교계를 상대로 공개적인 결사운동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초청장을 띄웠는데, 이것이 바로 『勸修定慧結社文』이다. 이로써 정혜결사를 결성(1190)하게 되는데, 그가 파격적으로 동료 승려들에게 기존 불교계를 통박하는 발언을 한지 8년만의 일이었다. 이 결사문은 禪과 敎의 학인들 뿐 아니라 유가와 도가 쪽 사람들에게도 보냈다고 한다. 즉 어떤 종파적 종교적 편향을 벗어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한 지식인의 고뇌에 동참을 호소한 것으로(그의 참신한 생각과 높은 理想은 그만큼 그가 처한 현실이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먼 과거로부터 몸과 마음의 고통을 헛되이 받아 아무런 유익함도 없었다. 현재도 한량없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받을 고통 또한 한이 없어, 버리기도 어렵고 떠나기도 어려운 데도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육신의 생명은 나고 죽음이 무상하여 잠깐 동안도 보존하기도 어려우니 부식들의 불이나 바람 앞의 등불 흐르는 물이나 지는 해에도 비유하기 어렵다.

11)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1, p.36.

12) 이 말은 중국의 선사 규봉 종필(789-841)이 주장한 것으로, 그는 헛되이 침묵만 지키는 명칭이 선(痴禪)과 단지 글만 파고드는 미치광이 지혜(狂慧)의 양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禪과 敎를 균형있게 공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13) 지눌은 이 기간동안 『육조단경』 등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에 『화엄경』의 근본취지가 禪과 일치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화엄론절요』를 저술하기에 이른다 (길희성, 앞의 책, pp.48-60).

세월은 급하고 빨라 가만히 늙음을 재촉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터를 닦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옛날 함께 놀던 이들을 회고해보니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여 있었더니 오늘 아침 손꼽아 헤아려보니 아홉은 죽고 하나 정도 살아있구나. 살아 있는 자들 또한 저들과 마찬가지로 차례로 사라져가니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기에 아직도 방자한 마음으로 탐욕 분노 질투 교만 방일로 명리를 추구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부질없는 말로 세상사나 논하고 있는가 혹은 계율을 지키는 덕도 없으면서 함부로 신도들의 보시를 받고 사람들의 공양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와 같이 그 허물이 한량없으니 덮어두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엎드려 바라나니 禪과 教 또는 유가와 도가를 불문하고 세속을 싫어하는 뜻이 높은 사람으로서 티끌 세상을 벗어나 세상밖에 높이 노닐면서 오로지 내적수행의 길에 정진하고자 하여 이 뜻에 부합하는 사람은 이 결사문의 뒤에 서명하도록 허락하노라.”

팔공산 거조사에는 결사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지눌은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된다. 그가 40세(1197)되던 해에 제자 守愚를 남쪽으로 보내 새로운 터를 찾게 하는데, 1백간 정도의 방을 갖춘 송광산 길상사라는 한 퇴락한 절을 개축하여 이곳으로 근거지를 이전하였다. 1197년에 시작한 개축공사가 9년만인 1205년에 끝나자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지눌을 흠모하던 회종(1204-1211)은 명을 내려 산의 이름은 송광산에서 曹溪山으로, 절의 이름은 정혜사에서 修禪社로 사액하였다.

회종이 수선사에 이처럼 관심을 보인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지눌을 존경해서인지 아니면 무신정권 하에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선사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의도인지 아니면 사실상 왕권을 조정하던 최씨 정권의 뜻에 따른 건지 확실치는 않다. 분명한 것은 최씨정권이 왕실과 구 귀족을 제어하기 위해 지눌이 시작한 새로운 불교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수선사가 중건되었을 때 그 개축을 기리기 위해 崔誥은 ‘大乘禪宗曹溪山修禪社重創記’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최충헌의 아들 최우가 감수했다. 최우는 지눌에 이어 수선사를 맡았던 진각국사 혜심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의 아들 최항은 한 때 수선사의 승려로서 혜심의 문하에서 수학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최씨정권은 끊임없이 불교계의 도전에 맞서야 했는데,<sup>14)</sup> 그들은 한편으론 승려들의 정

14) 최씨정권과 구 불교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1217년에는 최충헌의 사병들에 의해 8백여명의 승려가 살해되었다고 한다. 『한국사』 참조



계활동을 막으면서도 한편으론 비교적 정치적 색채없이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종에 호의를 보였던 것이다.<sup>15)</sup>

어쨌든 수선사는 최우가 집권하면서 불교교단의 중심세력으로 주목받고 크게 성장하였다. 최씨정권은 수선사의 법석을 잇는 법주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막대한 시납을 하였고, 고려후기 대부분의 국사, 왕사가 수선사에서 배출되었다.

수선사는 지눌에 이어 해심, 혼원, 천영에 이르러 절정기를 맞았다가 최씨정권이 몰락한 1258년 이후에는 서서히 퇴조하게 된다. 수선사와 백련사로 대표되는 고려말 불교계의 결사운동은 무신정권 이전부터 귀족불교가 보이던 타락상과 모순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불교혁신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핵심인물인 지눌이 제시한 理想은 명리의 추구로부터 정혜의 추구로, 세간적인 공덕신앙의 불교로부터 출세간적인 해탈 지향적 불교로, 왕실과 국가의 평안을 비는 기복불교로부터 개인의 구원을 추구하는 수행불교로, 귀족불교에서 평민불교로의 일대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씨정권이 자신의 세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권력과 밀착되어 변질되어갔다. 결국 결사운동이 지눌 당시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타락하자 고려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여 이 운동의 지지기반이던 지방의 독서인층, 향리층들도 새로운 사유체계를 찾아 떠나게 되었다.

## 1-2. 백련결사

지눌의 정혜결사와 더불어 이시기 대표적인 결사운동은 요세의 백련결사였다. 요세는 신종 원년(1198) 당시 천태종 사원이었던 개경의 高峯寺 법회에 참석하였다가 그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고 명산을 주유하다 지눌을 만나 함께 수행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뒤 회종 4년(1208) 월출산 약사암에 거주하던 요세는 문득 “만약 天台妙解를 발양하지 못하면 永明延壽의 120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계기가 되어 修禪에서 천태교관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였다. 요세는 강진의 토호 최표 등의 요청을 받고 만덕산에 백련사를 개창하고 고종 19년(1232)에 그곳에서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이어 4년 뒤 그의 제자 天顔이 지은 『백련결사문』을 발표하여 결사를 공식화하였다.

요세는 기존 개경 중심의 귀족불교의 타락상과 모순을 비판하는 운동이라는 점에

15) 길희성, 앞의 책, pp.77-8.

서 지눌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지눌의 경우는 선수행을 중심으로 정토신앙을 포용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식대중을 겨냥한 반면 요세는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방향으로 강조하면서 대다수 농민과 천민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와 같은 백련사는 1220년대까지는 지방토호와 인근 지방관의 배려 속에서 존속되었지만 1230년대 이후 대몽항전기에는 이전까지 수선사를 지지하던 최우를 중심으로 한 강화도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대장경 조판도 이 시기에 착수된다. 아마도 몽고의 침입과 관련하여 강력한 항전을 표방한 백련사가 최우정권의 구미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 2. 迦智山門의 浮上和 일연

원지배기에 이르면 그 이전의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던 수선사와 백련사를 대신하여 가지산문이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가지산문은 신라말에 소위 九山門 가운데 하나로 道義가 唐에 유학하여 馬祖道一의 제자인 西堂智藏에게서 心印을 받고 귀국함으로써 받아들여진 종파이다. 그 당시 도의의 禪法이 불교계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그는 설악산 진전사에 은거를 하게 되고 도의를 계승한 廉居를 거쳐 體澄에 이르러 현안왕 3년(859)에 왕의 소청으로 전남 장흥 가지산에 주석하고 있다가 경문왕원년(861)에 이를 확장하여 가지산파를 형성한 것이다.<sup>16)</sup>

고려 인종 즉위년(1122)에 가지산문의 學一이 王師로 책봉되었는데, 학일은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동참하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선종 나름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한 인물이다. 학일 이후에는 가지산파의 활약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원지배초기에 일연이 국존으로 책봉되는 등 이때부터 가지산문은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한다.

여기서 일연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연의 저서로 주목받아 온 『삼국유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 저자인 일연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연의 저작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가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普覺國尊碑銘조차 심하게 훼손된 채 비각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각국존비의 글은 당대 문인 閔漬가 찬하였고, 일연의 제자인 竹虛가 칙명을 받아 진나라 왕희지 글씨를 모아 또 다른 제자인 淸珍이 비석을 세웠다. 왕희지의 글씨는 집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연 비문을 위해 쓰여진 것과 같아

16) 채상식, 앞의 책, pp.323-4.

서 이에 탄복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탁본을 하는 바람에 심하게 훼손되었고, 게다가 조선시대 유생들 사이에서 과거시험의 합격을 보장해준다는 속신이 생겨 저마다 비석을 조각 내 가져간 까닭에 형체를 거의 잃게 되는 수난을 겪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탁본이 남아 있어 그것에 의거해 일연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일연(1206-1289)은 경주의 속현인 장산군(지금의 경북 경산)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김언필이고 어머니는 이씨였다. 일연의 공로로 후에 아버지는 左僕射에, 어머니는 낙랑군부인으로 봉해졌다. 어머니 이씨는 일연을 잉태하기 전에 태몽을 꾸었다고 하는데, 밝은 해가 집안으로 들어와 배에 비추는 꿈을 꾸고는 아이를 배어 낳은 것이 일연이었다. 어릴 때 이름은 見明, 나중에 一然으로 고쳤고 자는 晦然이었다.

1214년, 그가 9세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해양(지금의 광주) 무량사에서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승려로 입문한다. 진전사는 가지산문의 初祖 도의선사가 창건한 절이다. 가지산문은 신라말에 九禪門 중의 하나로 도의가 당에 가서 마조도일의 제자인 西堂智藏에게서 心印을 받고 신라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함으로써 받아들여진 종파이다.

1227년, 일연은 22세에 승려들의 과거시험인 選佛場에서 수석에 해당하는 上上科에 급제하였다. 그후 청년기를 보낸 설악산을 떠나 毳毼山으로 갔다. 일연은 일생동안 이 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머물렀다. 한 차례는 22세에 와서 44세에 남해 정림사로 옮겨갈 때까지이고, 또 한차례는 말년에 인홍사에 머무르다가 71세에 운문사로 옮겨가기까지이다. 이렇듯 비슬산과의 인연은 짧지 않은 데다가 그의 나이 32세에 이 산에서 득도한다. 그는 '생계는 줄지 않고 불계는 늘지 않는다'(生界不減 佛界不增)는 말을 가지고 참선하던 중, 하루는 활연한 깨우침이 있어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오늘에야 三界가 꿈과 같았음을 알았으며 대지에 터럭 하나만한 장애도 없음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때 삼중대사로 임명이 되고, 1246년에 41세로 禪師가 된다.

1249년, 44세되던 해에 일연은 최씨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鄭曇의 초청을 받아 남해의 定林社로 옮겨간다. 남해의 길상암에 머물며 『중편조동오위』를 지었다. 1259년 그의 나이 54세에 국가로부터 선종에서 최고의 자리인 대선사의 승계를 받게 된다. 1261년 원종의 부름을 받고 강화도의 禪月社에 머물며 설법하였다. 이때 '목우화상 지눌의 법맥을 계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일연이 가지산문 출신이나 수선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가 왕의 命을 받

고 강화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려가 몽고에 항복한 이후 최씨정권과 밀착된 수선사의 세력이 위축되자 왕정이 복고(1258)된 후 고려왕실에서 수선사와는 소속이 다른 가지산파의 일연을 등장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sup>17)</sup> 이 문제는 차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대	불교계	비고
105 문종(1046-1082) 순종(1083) 선종(1084-1094) 현종(1094-1095)	의천, 宋에서 돌아옴(1086) 천태종의 본거지 국청사 창건(1097) 선종교단 분열(천태종/조계종) 4대종파(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조계종)	
1100 숙종(1095-1105) 예종(1106-1122) 인종(1122-1146)	*의천사후(1101) 선종부흥 가지산문의 학일 왕사로 책봉(1122) 사굴산문의 탄연 왕사로 책봉(1146) *이자현 능엄강회개최(1121)	이자겸의 난(1126) 묘청의 난(1135) 《삼국사기》(1145)
1150 의종(1146-1170) 명종(1170-1197) 신종(1197-1204)	지눌(1158-1210) 담선법회에서 결사제의(1182) 거조사에서 정혜결사(1188) 권수정혜결사문(1190)	무신의 난(1170) 농민봉기(1193) 최충헌집권(1196) 만적의 난(1198)
1200 희종(1204-1211) 강종(1212-1213) 고종(1213-1259)	수선사 중건(1205) 일연출생(1206) 지눌입적(1210) 요세, 백련결사(1211-1216) 일연출가(1214) 설악산 진전사에서 구족계받음(1219) 대장경조판착수(1236) 일연, 삼중대사가 됨(1237) 선사(1246)	거란침입(1216) 최우집권(1219) 왜구침입(1226) 몽고침입(1231-1239) 황룡사탑소실(1238) 강화도천도(1232-1239)
125 원종(1259-1274) 충렬왕(1274-1308)	일연, 대선사(1259) 일연, 운문사에서 삼국유사 저술 착수(1277) 일연, 국존 책봉(1283) 일연, 인각사에서 구산문도회개최(1284) 삼국유사완성(1285?) 제왕운기(1287) 일연입적(1289)탑비건립(1295)	왕정부활(1258) 몽고에 굴복(1259) 개경으로 환도(1270) 태자, 몽고에서 귀환하여 충렬왕으로 즉위(1274) 제왕운기(1287)

17) 채상식, 앞의 논문, pp.330-331.

### Ⅲ. 13세기 후반 불교계의 동향

지금까지 대각국사 의천 死後 선종이 점차 대두되면서 나타나는 불교계의 推移를 年代順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존의 귀족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불교개혁운동에 해당하는 결사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계기로 그 취지에 매력을 느낀 당시의 지식인들, 특히 지방의 독서층과 호족층들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심취하기도 하면서 사회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불교계의 중심점이 개경에서 지방으로 옮겨져 지방사원이 중심적인 도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귀족 중심적인 불교에서 민중 중심적으로의 전환이 그 특징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교단 불교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단 중앙불교계 뿐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도 13세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종파간의 배타적인 요소가 약화되고 상호교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가령 일연이 小融和尚을 만나 조동종에 관해서 논의한 것, 一然과 혜심은 각각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출신이지만 상호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파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서술을 보이고 있는 일연의 『삼국유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천에 의해 침묵되었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불교가 다시 등장하는 현상이다. 神異한 행적으로 운색되었다고 비판되던 육조혜능의 傳記인 『육조법보단경』, 『보림전』 등이 고승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의천에 의하여 무시되었던 鈞여의 저작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sup>18)</sup> 천태종 승려 天頤은 법화 신앙에 의한 異蹟을 강조하는 내용을 저술하였고, 이 시기에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사를 서술할 때 뿐 아니라 정치사회사를 기록하면서도 주저없이 神異적인 전승들을 수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3세기에는 교종세력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群小종파들이 성립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神印宗, 持念業 등이 있는데, 신인종의 경우 고려초 이후에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게 될 정도로 약화되다가 13세기에 이르면 西京의 金剛寺에서 文頭婁道場이 배풀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신인종은 신비적 주술의 일종인 문두루비법이 국가의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아 행해짐으로써 호국적인 요소가 있고, 持念業은 개인의 질병에 대한 구원을 기원하는 개인적 차원의 밀교

18) 허홍식, 앞의 논문, pp.92-3.

로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데, 14세기에는 신인종이 보편적인 명칭이 되었다.<sup>19)</sup> 신비적 요소가 강조되는 이러한 종파들의 유행은 당시 교단불교계의 변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일 것이다. 그밖에 南山宗(律業), 海東宗(芬皇宗), 소승업 등이 있었는데, 『삼국유사』에 이 종파들, 특히 芬皇宗과 관련된 내용이 元曉不羈條에서 엿보인다.

13세기말의 이와 같은 불교계의 상황에서 일연은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정작 자신이 최고의 지위로서 몸담고 있던 선종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이 모든 종파에 대한 비교적 포괄적인 서술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인물에 대해 한 저작물만 가지고 그의 사상적 경향을 추적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작업일뿐 아니라 더구나 대부분의 저작들이 현전하지 않은 여건 하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비문에는 일연이 『어록』 2권, 『偈頌雜著』 3권, 『大藏須知錄』 3권, 『諸乘法數』 7권, 『祖庭事苑』 30권, 『重編曹洞五位』 2권, 『祖派圖』 2권, 『선문염송』 30권 등 총 백 여권에 달하는 책을 저술 혹은 편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문제의 『삼국유사』와 『중편조동오위』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sup>20)</sup>

그런데 일연의 현존하는 저술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사실이 오히려 그의 사상적 특징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즉 그가 종파를 초월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선종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선종계에서의 입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또 忽滑谷快天이 지적한 ‘시대의 사조에 빠져서 사상과 신앙 두 가지가 모두 순수하지 못하였고 가지산문의 현풍을 진작하기에는 부족하였다’라는 표현은 앞서 밝힌 13세기 불교계의 특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를 뒷받침할 1차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선 좀더 두고 볼 일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연과 그를 계승한 문도들이 신라 말의 범일국사가 주창한 바 있는 眞歸祖師說을 신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sup>21)</sup> 이것 또한 좀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19) 허홍식, 앞의 논문, pp.94-95.

20) 『중편조동오위』, 『삼국유사』와 더불어 일연에 관한 자료가 또 있다. 그것은 『楞嚴經環解刪補記』라는 普幻의 저서에 부록으로 붙인 『刪補通妨』 중의 妨인데, 보환은 『능엄환해산보기』를 집필하면서 일연에게 그 글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21) 범일국사에 관한 기록은 『祖堂集』 권17, 『禪門寶藏錄』(상), 『삼국유사』 권3 탑상 제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 및 같은 책 권3 ‘臺山五萬眞身’條, ‘臺山月精寺五類聖衆’條 등에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조당집』 권17은 범일국사의 일대 행적과 그가

#### IV.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삼국유사』의 서술태도가 오늘날의 신화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하나의 텍스트일거리는 전제하에 『삼국유사』가 출현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 고려 불교계의 동향 그리고 일연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계에서 『삼국유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의문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연대기적 시간을 준거로 하여 신이한 이야기로 넘쳐나는 『삼국유사』가 불교내의 어떤 흐름과 맞물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육당 최남선 이래 『삼국유사』는 주로 『삼국사기』와 비교시되어 유교적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력의 저술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시각에서 방향을 달리하여 필자는 불교 내에서 『삼국유사』의 평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일환으로 우선 『삼국유사』가 편찬될 당시인 고려말 불교계의 동향과 그 흐름 속에서 『삼국유사』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려 말의 불교계의 특징으로는 우선 기존의 귀족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불교개혁운동이다. 이 운동은 신앙결사의 형태를 띄고서 당시의 지식인들에 해당하는 독서층과 호족층을 흡수하면서 이들이 사회중심세력으로 浮上하게 된다. 그 결과 불교계의 구심점이 개경에서 지방으로 지방사원이 중심적인 도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틀이 붕괴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내의 종파간의 상호교류도 이루어졌는데, 일연과 혜심은 각각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출신이지만 교류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종파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인 서술을 보이고 있는 『삼국유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천에 의해 비판되었던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불교가 다시 등장하는 현상이다. 육조혜능의 전기인 『육조법보단경』 등이 재조명을 받게 되고, 천태종의 승려인 天頤의 저술은 법화경의 신앙에 의한 異蹟을 강조한 내용으로써 『삼국유사』의 신이한 이야기들과 비교할만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려말, 특히 13세기말 불교계의 동향을 미루어볼 때 이 시기는 어느 종파도 주도하지 못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대변혁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삼국유사』의 全篇을 압도하는 신비적 史觀은 단지 저자가 불교인이라는

당에 유학했을 때 그곳 선사들과 서로 문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대장경의 補遺板으로 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연이 남해 시절 이를 열람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채상식, 앞의 책, p.150).

사실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당시의 사상적 분위기를 일정 정도 반영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내용이 종파를 초월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정작 저자가 몸담고 있었던 선불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저자의 선종계에서의 입지의 문제등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은 필자의 차후 과제로 삼을 것이다.



## 참고문헌

『삼국유사』

Llyon, Ha Tae-Hung translated, *Samguk Yusa*, Yonsei University Press, 1972.

『國譯一切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한국불교전서』

『조선금석총람』上

『삼국사절요』

『동사강목』

길희성, 『지눌의 선사상』, 소나무, 2001.

김철준, “고려초의 천태학 연구 — 체관과 의통 —”, 『한국고대사회연구』, 1975.

불교사학회, 『고려중후기불교사론』, 민족사, 1992.

불교사학연구소, 『증보삼국유사연구논저목록』, 민창문화사, 1995.

예문동양사상연구원, 『의천』, 예문서원, 2002.

진성규, “고려후기 진각국사 혜심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1986.

———, “진각국사 혜심의 수선사활동”, 『중앙사론』5집, 1987.

정병삼, 『일연과 삼국유사』, 새누리, 1998.

조명제, “고려후기 계환해능업경의 성행과 사상사적 의의”, 『부대사학』12, 1988

최병헌, “고려시대의 화엄학의 변천”, 『한국사 연구』30, 1980

채상식, “고려후기 천태종의 백련사 결사”, 『한국사론』5, 1979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6.

한종만, 『한국조동선사』, 불교영상, 1998.

허홍식,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1986.

忽滑谷快天, 『朝鮮禪敎史』, 大東佛敎研究院, 1970